

캠프 사역 이모조모

○ 민다나오 사역지



민다나오 시범농장 첫 두리안 수확 및 시범 냉동가공 판매 진행
 8월 20일 민다나오 바랑가이 마누엘귀양가 시범농장에서 첫 두리안 수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민다나오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프의 두리안 농가 사업은 다양한 유기농법을 적용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올해 첫 수확된 시범농장 두리안은 협동조합과 협력기관인 로컬 D'farmers Market 시설에서 진공 및 급속 냉동 과정을 거쳐 상품화됩니다. 특히, 가공 과정에서 시범농장 두리안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가공판매되어 현지 농부들의 수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딸락 사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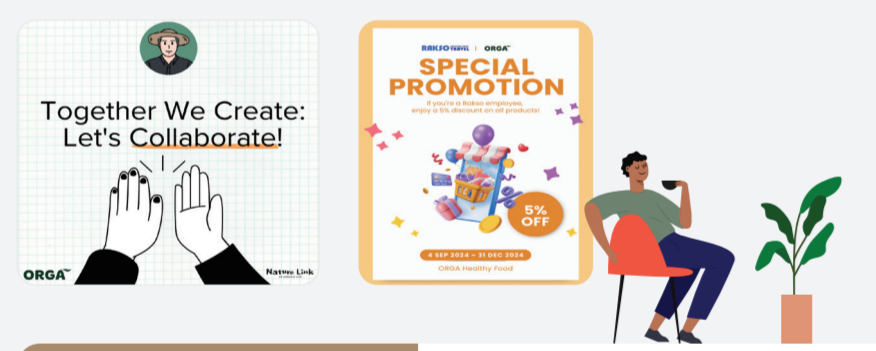
산호세시 이바고등학교와 산후안데발데즈 고등학교와 협약
 9월 10일, 필리핀 딸락주 산호세시 이바 고등학교와 산후안데발데즈 고등학교에서 사단법인 캠프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농업교육, 한국 교회 및 학교와의 교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바 고등학교는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산후안데발데즈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불라칸 사역지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익팅 13주년 기념행사
 7월 15일, 캠프의 1호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익팅이 13주년을 맞이하여, 레크리에이션과 공동식사를 통해 상호친교를 도모하고, 출발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는 자부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봉제센터 익팅 멤버들은 강제이주지역 타워빌에서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익팅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마닐라 사역지



네이처링크 올가매장, 마카티 소재 RAKSO Travel and Tours 파트너십 체결
 9월 4일,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 올가매장은 마카티 소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파트너 RAKSO Travel and Tours와 파트너십을 통해 회사 직원들에게 올가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웰빙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추구하는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만들기의 일환으로, 향후 회사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비전트립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10월부터
- 신청방법 : 이메일 campint@icamp.asia, 02-3147-0309, 홈페이지 www.icamp.asia(비전트립 참조)
- 캠프 필리핀 사역현장
 - 마닐라 사업장 :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친환경매장을 방문하여 사회연대경제를 경험
 - 타워빌 사업장 :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와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가 운영하는 식품가공 현장과 친환경 양계장 체험 활동
 - 딸락 사업장 :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와 올가 농장 봉사활동, 지역학교와 인근 소수민족 자립지원 활동
 - 민다나오 사업장 : 두리안 협동조합 4개 바랑가이 방문, 민다나오 소재 대학교와 기관 방문

아시아빈곤선교센터 CAMP NEWSLETTER



2024년 가을호 Vol.53



이철용 목사의 자립선교 이야기

추수감사절에 들려오는 다바오 두리안 농부들의 희망의 목소리

이철용 목사 (사단법인 캠프 대표)

농사는 언제나 도전적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속에서 농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하는 농업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이 더욱 은혜로운 것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들리는 희망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캠프는 다바오 두리안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남부민다나오대학 토양연구소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리안 나무에 유기농 비료와 토양 개선제를 사용하고, 코코넛 껍질로 뿌리를 덮어 수분과 영양분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농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0여 개의 조합원 농장에서는 온도, 습도, 강수량을 매일 기록하며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40% 이상 많은 꽃이 피고, 수확량과 당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확된 두리안의 모양도 대부분 A급으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수확한 두리안은 지역 내 인증된 가공시설에서 급속냉동 진공포장을 통해 고 품질 제품으로 가공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뜨겁습니다.



통상 5년이 걸리는 협동조합 결성 노력도 2년이 되는 연말에는 협동조합 인가를 받을 거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근의 두리안 농가뿐만 아니라 카카오 농가들에게도 기술 전수를 요청할 만큼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땅이 열매를 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사역에 기도과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67편 6절
“땅이 그 열매를 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로다.”
 는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두리안 협동조합의 시범 농장이 올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두리안들이 드디어 수확되었고, 품질 또한 우수하여 조합원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다바오의 대표 과일인 두리안은 ‘과일의 왕’으로 불리며, 강한 맛과 향, 그리고 높은 영양가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고가가 거래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같은 시기에 두리안을 출하하다 보니,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 후 마닐라 운송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기후 변화로 질병이 많이 생기고,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체국 010033-01-006981 (아시아빈곤선교센터)



- 캠프 본부 (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 02-3147-0309
- 캠프 아시아 (필리핀)**
 마닐라 : ORGA store, G/F, 115 Gamboa, Legazpi Village, Makati, 1229 Kalakhang Maynila
 Tel : +63-2-8354-2858, +63-905-307-0911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딸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민다나오 : Lagudas Farm, Purok 3, Brgy. Sirib, Calinan Dist., Davao City

- 홈페이지 : www.icamp.asia
- 메일 : campint@icamp.asia (필리핀) camp-ph@icamp.asia
- 블로그 : blog.naver.com/camplove11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amp.asia
- 인스타그램 : @camp_int
- 유튜브 채널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터다운 : https://url.kr/9yca8



캠프 후원하기 QR 바코더기

· 사단법인 캠프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정회원입니다.

희망을 재봉하다 포스코와 캠프 1호 사회적기업 익팅봉제센터의 협력 이야기

필리핀의 사회적 기업 익팅 봉제센터에 포스코가 3만 벌의 작업복을 기부함으로써 희망찬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부는 필리핀 전역에 리폼된 작업복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익팅의 수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익팅은 포스코의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특별한 날 : 전달식과 자원봉사



지난 7월 2일, 필리핀 딸락의 소수민족 마을 마뭏에서 포스코의 노경협 의회와 지속가능경영실 임직원, (사)캠프, 익팅 조합원 및 마을 주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달식에 앞서 포스코 임직원들은 딸락 지속가능발전센터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건축팀 청년들과 함께 친환경 건축 소재를 활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적 기부를 넘어서 지역 사회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원의 순환과 지속가능한 변화

기부된 작업복은 한국에서 수거 및 세탁 후 필리핀으로 배송되어 익팅 봉제센터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재탄생합니다. 리폼된 의류는 지방정부와 지역단체를 통해 청소, 건설 및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직



업 인력에게 제공되고, 일부는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어 봉제센터의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자원 순환을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일부 리폼 의류와 소품들은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어 봉제센터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수익은 봉제센터의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필리핀 여성들에게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익팅의 도전은 자원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부된 작업복이 지역 사회의 필요에 맞게 리폼되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익팅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여성들이 봉제 기술을 배우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사자 이야기 날마다 깊은 감동을 받은 필리핀 봉사활동

유재웅(포스코 노사협의회 본사부문 직원대표)



Q1. 본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유재웅이라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왔으며,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마케팅본부, 그리고 포스코재팬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현재는 마케팅본부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사협의회(이하 노경협의회) 본사부문 직원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Q2. 이번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번 봉사활동은 포스코 노사협의회 본사부문 직원대표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고, 개인적으로도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필리핀 현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캠프의 이철용 대표님과 조부영 지부장님을 만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코이카의 김은섭 소장님과 지파운데이션의 정순호 본부장님도 함께 하셔서 그 만남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딸락에서 진행했던 벽체 조립작업, 친환경 퇴비 만들기, 벌초작업 등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땀 흘리는 봉사를 하게 되어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순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Q4.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봉사를 하셨나요?

네, 저는 포스코 서울지역 조경재능봉사단장을 맡아 5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포스코 지속가능경영실 사회공헌그룹과 협력하여 벽화 그리기, 조경 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사회복지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이나 조경작업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Q5. 이번 봉사활동에서 포스코 임직원으로서 느낀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포스코에서 기증한 작업복들이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그 작업복들이 필리핀 주민들에 의해 리폼되어 다시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Q6. 캠프의 현지 활동을 처음 경험하셨을 텐데, 단체의 활동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평소에도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 역시 오래 전부터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가 현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Q7. 신앙적으로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캠프의 활동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와 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 주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에 가슴에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캠프에 대해 조언과 응원 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캠프와 같은 단체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 자신의 충족을 위한 삶도 중요할 수 있지만, 희망을 잃고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지구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캠프와 같은 NGO 단체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전도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캠프, 파이팅!

